

“강렬한 어머니 슬픔...콜비츠 작품 포로 뒀죠”

日 오키나와 사카미 미술관 사카미 미시마 관장

광주시립미술관 '세계민중판화전' 콜비츠 작품 15점 대어 미군기지 보상금으로 미술관... 소장품 대부분이 반전 작품

광주시립미술관 '세계민중판화전' (8월 12일까지)에서는 세 명의 판화가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오윤, 일본의 도미야마 다에코, 그리고 독일의 케테 콜비츠. 전시중인 콜비츠의 판화는 15점으로 모두 일본 오키나와 사카미 미술관에서 대여해왔다.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한 사카미 미시마 관장과 인터뷰를 앞두고 다시 미술관을 찾아 콜비츠의 작품을 둘러봤다.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 등 단순한 선으로 표현해낸 작품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사카미 관장은 이날 '케테 콜비츠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1994년 개관한 사카미 미술관은 사카미 관장이 오키나와 미군 후방까지 안에 있던 조상의 토지를 반환 받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구입, 문을 연 공간이다. 콜비츠의 작품을 60여점 소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요 컬렉션인 조르주 루오의 작품 100점 등 모두 1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광주는 이번이 세번째 방문입니다. 시립 미술관으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았을 때 광주

의 민주 정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흔쾌히 받아들였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자 민주화의 현장이라 늘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민속 학자였던 조부의 영향으로 1975년부터 미술품 컬렉션을 시작했던 그는 어느날 콜비츠의 작품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1903)를 접하고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콜비츠는 학창 시절 좋아했던 루신을 통해 알게 됐어요. 언젠가 긴자 화랑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이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꼭 아차기 아이를 잡아먹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 보니 그 무엇보다 강렬하고 깊은 어머니의 슬픔이 보였죠. 보면 볼수록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그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었어요. 이 작품을 통해 콜비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시다." 이 작품은 콜비츠 관련 첫번째 컬렉션이 됐고 이후 육선 등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수집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희생', '지원병들' 등 7점의 전쟁 연작은 콜비츠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중인 케테 콜비츠의 '자화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일본 사카미 미술관 사카미 미시마 관장.

초가 "이 그림들은 마땅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보시오, 우리 모두가 겪은 이 참담한 과거를"이라는 말을 남긴 그녀의 대표작이다. 사카미 관장은 2016년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연애했던 작품 '싸앗을 짓어겨서는 않된다' (1942)를 구입하는 행복감을 누리기도 했다. 그가 콜비츠의 작품에 마음을 빼앗긴 건 전쟁을 치른 오키나와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 루오 그림 역시 1차 대전 등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다. "콜비츠는 아들과 손자를 세계대전에서

잃었어요. 작품 한점 한점에 담긴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콜비츠의 작품에 나타나는 슬픔은 너무도 애절하고 강렬합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데 이보다 강렬한 이미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키나와 어머니들 역시 전쟁에 자식을 내보냈고 전쟁 후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파이팅하며 살았죠." 한국 민중미술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홍성담 작가의 작품도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미술관을 짓기 전 토지 반환 운동을 전개했고 배상금을 받았죠. 미군 기지 사용 대가로 받은 돈을 생활비나 그런 용도로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술의 힘을 빌리자' 생각했죠. 미술관이 문을 열었을 때 '문화의 힘이 기지를 반환시켰다'는 기사가 나가기도 했죠." "고뇌와 구제", '인간과 전쟁'. '삶과 죽음'을 테마로 한 미술관은 270년 역사의 전통 오키나와 묘를 형성화했고, 건물 옥상 계단은 '오키나와 위령의날' (6월23일)의 태양 일출선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설계하는 등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미술관이 삶에 대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사색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고 그 비참함을 잊지 않아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카미 관장이 염원했던 '싸앗을 짓어겨서는 않된다'



전쟁 연작(7점) 중 한편인 '어머니들'

“우리 미술관이 삶에 대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사색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고 그 비참함을 잊지 않아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1월 15일~18일 DJ센터서 광주국제아트페어 70여 화랑 참여·작가 부스 80여개 운영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국제아트페어(이하 아트:광주:18)가 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섰다. 최근 선임된 장유호(56) 총감독은 이번 아트:광주:18의 주제를 '선물(GIFT)'로 잡고 '귀한 사람에게 귀한작품을...'을 컨셉에 따라 행사를 기획중이다. 이번 아트페어는 예전처럼 화랑과 개인 작가 부스가 함께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외 화랑 70여개가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 130여개가 달했던 작가 부스는 80여개(2인부스 포함)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획전으로 오지호 등 지역 대표 작가들과 미디어 등 새로운 장르로 작업하는 작가들의 연합전과 한중일 청년작가전을 준비중이며 아트마켓, 미술체험 행사 등도 준비했다. 한편 주최측은 총감독 체제의 행사운영, 갤러리 및 참여작가 선정에 대한 외부 심사위 구성,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해 광주아트페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사 준비 기간이 촉박한데다 운영위원들이 일부 사퇴하기도 해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유호 총감독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갖바위 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축제 예술총감독, 전남 국제수목 프리비엔날레 전시기획, 무안 오송우 미술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 큐레이터도 맡고 있다. 장유호 감독은 "광주미협, 운영위원회 등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준 만큼 운영위원과 집행기간의 충분한 소통구조를 갖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행예산부터 전시운영, 결과 보고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동 작가 개인전 26일~8월 1일 무등갤러리

서양화가 정동 작가 개인전이 오는 26일부터 8월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고흥군청 과장 등 41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정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왔다. 이번 전시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출발'을 기약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전시에서는 남일 몽돌해변, 녹동향, 팔영산, 용암해변 등 고흥 풍광을 담은 작품들과 양귀비, 모란, 목련, 해바라기 등 자연 속에서 만난 꽃과 나무를 소재로 삼은 그림을 선보이고 있다. 호남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정 작가는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장, 한국사진작가협회 고흥지부장 등을 맡고 있다. 초대 일시는 26일 오후 6시. 이번 전시는



'가을-해바라기'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고흥군 연흥 미술관에서도 열린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풍물천지 아리술, 국악영재 경연서 교육부장관상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이하 두드리 대표 이시영) 산하 단체인 풍물천지 아리술이 지난 21일 크라운 해태제과에서 개최한 '제6회 모여라!!! 국악영재' 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팀이 참가했다. 15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풍물천지 아리술의 '전통연희 마당'이 종합대상으로 선정됐다. 두드리와 풍물천지 아리술은 8월 1일부터~10일까지 유럽 3개국(독일·스위스·프랑스)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소리, Samulnori' 순회 공연을 하며 우리 국악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가야금 산조의 분향 영암서 28·29일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

가야금 산조의 분향인 영암에서 신진국악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가야금 국악대전'이 열린다. (사)김창조 산조보존회는 '제7회 영암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을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가야금산조 기념관'에서 개최

한다. 이번 대회는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신진국악인의 등용문으로 전통을 계승하며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가야금, 가야금병창, 관악,

현악 4개 분야에서 일반부, 학생부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일반부 종합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등이 수여되는 등 50명에게 시상이 수여된다. 본 경연에 앞서 27일 오후 4시30분부터

개회식과 함께 가야금산조 기념관 개관4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이 열린다. 인간문화재 양승희와 제자들, 가야금 병창 노향, 영암 어린이 가야금연주단이 출연한다. 참가신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26일까지 팩스(061-471-5202)나 이메일(cjkim185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